



‘가장 역동적이고 젊은 도시’를 꿈꾸는 천안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천안 위상의 변화 기대

천안시는 1963년 시 승격 이후 예산 2조원 이상, 인구 70만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우뚝 성장했다. 전국을 2시간대로 연결할 수 있는 최고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11개 대학과 7만여명의 학생이 재학하는 젊고 역동적인 도시다.

중부권 최대의 기업도시로, 14개 산업단지 900만㎡가 조성돼 있고 현재 10개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2천760여개 제조업체 등 많은 기업이 자리 잡아 일자리가 풍부하다.

양적·질적으로 성장한 천안시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경제·문화 중심 도시로 성장을 꿈꾸고 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기업하기 좋은 ‘새 희망 미래도시’

천안시는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무너진 지역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1천278억원을 긴급 투입하고 경제 비상을 위한 ‘활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경제 상황대응반을 구성해 ▲ 소상공인 특별보조지원 조기 시행 ▲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확대 ▲ 피해 신고센터 설치 ▲ 예산 신속 집행 ▲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을 했다. 3월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비상대책반을 확대 운영해 8개 분야, 26개 부서, 64개 과제로 구성된 분야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관광자원과 숨이 있는 ‘고품격 문화도시’

박상돈 천안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강조한 공약 중 하나는 다양한 관광 자원 개발이다. 박 시장은 “왕건이 930년 후삼국 통일의 과업을 앞두고 전략적 요충지인 지금의 천안에 ‘하늘 아래 살

기 편안한 곳’이란 지명을 지은 것을 바탕으로 천안의 정체성을 부여한 왕건 동상을 건립하고 문헌 고증을 통해 왕건의 사적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동남구 구도심 지역에 동헌 건물과 누각을 복원하고 불거리와 먹거리리를 한 번에 충족할 수 있는 올드타운 조성을 검토 중이다. 독립기념관 내 K-컬처 전시관 건립과 K-아트 엑스포 개최도 검토할 예정이다.

편리한 교통체계 도입 및 풍부한 도로망 확충

천안시는 시민 불편이 없도록 편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를 도입하는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수도권 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환승 도입을 검토하고, 심야버스와 중앙버스차로제, 버스 간선·지선 체계 등을 도입해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합리적 버스 노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물론 수도권 전철 연장 사업에 맞춰 청수·부성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8월 말까지 수도권 전철 부성 지역 외 2개 지역 역 신설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경제를 바로 세우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천안을 만들어나가겠다”며 “정체성을 살린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스마트 대중교통 도입 등 천안의 위상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2022년 준공예정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확장
2022년 준공예정



성기일반산업단지
2022년 준공예정



천안북부BIT 일반산업단지
2023년 준공예정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2023년 준공예정



천안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2023년 준공예정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2024년 준공예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천안**에서
강소기업을 향한 **꿈**을 펼쳐보세요!



분양문의 |  천안시 기업지원과 041) 521-5465